

자연보존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제 8 호 特輯 1975. 11.

韓國自然保存協會 發行



지금은 불에 타 없어진 천연기념물 94호, 삼척의 「회화나무」

특집호를 내며

회장 이 덕 봉

지금 세계는 저마다 자기 나라의 자연과 자연 자원을 보존하려는 국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려한 금수강산과 자연 자원을 잘 보존하여 원상대로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서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나타내고 후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생존 조건을 악화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특정한 단체나 행정부의 힘만으로는 그 뜻을 이루기 어려우며 국민 모두가 스스로 자연보존의 정신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여 나가는 길만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회는 이와같은 국민적 대업을 성취함에 있어 적으나마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발족 이래 오늘날까지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이러한 본회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계몽지 「자연보존」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애석하게도 불과 몇호를 잊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가 본 협회의 발전적 개편에 따라 다시 그 속간을 보게 되어 이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협회에서는 이 소책자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짐으로서 본지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 부수를 늘렸고, 보다 유익하고 알찬 내용을 많이 수록하기 위하여 면수도 20면으로 증면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본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희귀 또는 고유 자연 자원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실태 파악과 보존책 연구에도 진력하고 있는바 74년도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본지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므로써 국민들의 자연 자원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자 본 특집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독자 제현의 자연 자원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연구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담당하여 알찬 보고서를 내어주신 세분과 그동안 본지를 위하여 육고를 기고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배전의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韓國植物中 絶滅 또는 그 危機에 있는 것과 稀貴種에 관한 調査研究

研究擔當者 朴 萬 奎

緒 言

中井猛之進 博士의 朝鮮植物梗概(1952年)에 따르면 韓國管束植物은 107目, 223科, 968屬, 3176種, 841變種, 174品種, 計 4191種類가 自生하고, 그 中에는 11屬, 642種, 402變種, 71品種, 計 1118種類의 固有種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

이 種類數는 다른 研究者들에 의하여 種의 分離統合, 또는 新追加種과 아울러 固有種中에도 中井博士가 평양産의 지모를 基準으로 하여 設立한 *Terauchia* 新屬에 평양지모(*Terauchia anemarrhenaefolia* Nakai)를 예속시킨 바가 있으나, 北川政夫博士의 研究에 의하여 지모(*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의 病態型이라고 밝혀져, 이미 廢止된 新屬이다. 이와 같이 種類數에 變動은 있을 것이나 朝鮮植物梗概는 韓國植物相을 概觀할 수 있는 綜合的인 目錄이다. 韓國의 固有種, 植物分布地理上의 標識種, 地質時代의 遺存種, 栽培植物의 原種, 過去 栽培植物로서 現存하는 것 將來 資源으로서 開發할 수 있는 것들과 아울러 環境의 變化, 그 밖의 要因으로 個體群이 減少되어 가는 野生植物, 일찌기 外國에서 導入한 것으로서 土着化한 것들의 대부분은 이미 文化財保護法에 따라서 天然記念物로 指定하여 保護하고 있다.

天然記念物로 指定한다고 하여서 珍貴한 것, 稀貴한 것을 永久이 保存할 수 없다는 것은 濟州道 南濟州郡 西歸邑 섭섭의 파초일엽이 오래전에 絶滅하였고 漢拏山 南쪽의 廣葉常綠樹林 밑에 있는 한란도 해마다 그 個體群이 줄어가는 점으로 수증할 수가 있다. 絶滅하였거나 또는 그 危機에 놓인 種類를 現時點에서 파악하고, 그 原因을 究明하여 그에 관한 根本對策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急先務라고 본다. 今年度까지에 그 實態調査를 마치지 못한 것은 그 이름과 分布地만을 列擧하여 다음날의 調査資料로서 提供하는 바이다.

※ 이 調査研究는 韓國自然保存協會의 1974년에 支給된 研究費 補助金에 의하여 進行되었음을 밝혀둔다.

絶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1. 파초일엽(접섬일엽)

Asplenium antiquum Makino

濟州道 南濟州郡 西歸邑 섭섬 所在

꼬리고사리과에 속하는 常綠羊齒인데 根莖은 塊狀이며, 多數의 單葉이 放射狀으로 排列한다. 觀賞用으로 溫室에서 花盆에 널리 栽培한다.

日本の 本州(伊豆諸島 및 紀伊半島), 四國, 九州와 琉球, 臺灣에 걸쳐서 分布하는 亞熱帶性 分子로서 濟州道의 섭섬이 이 種類의 分布上의 北限地帶가 되는 것이다. 파초일엽의 自生地는 이미 天然記念物 第18號로서 指定한 것이다.

8.15解放後 混亂한 틈을 타서, 隣地部落民들이 用材, 또는 蓆감으로 山林을 伐採한 까닭에, 파초일엽의 生育環境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왔고 일부 沒知覺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대로 캐낸 탓으로 絶種된 것이라고 본다.

本人은 1965年, 1968年, 1969年, 1974年의 4次에 걸쳐서 現地를 踏査하였으나, 한그루도 찾아 낼 수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絶滅한 것이라고 간주된다. 만일 있다고 하면 絶壁의 나무 위어나 남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濟州道 公報室에서는 이를 復元할 계획으로 1973年 봄에 特志家로부터 한그루를 寄贈 받아서 移植하였는데 今年 8月까지는 아직 죽지는 않았으나 生育狀態가 매우 좋지 못하였다. 公報室 李主事에 의하면, 昨年 옮겨심을때와 一年이 지난 오늘에도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같이, 植物이 한번 絶滅한 뒤에는 人工적으로 이를 復元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처음부터 잘 보호하여 絶種이 되지 않게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라고 본다.

文化財 管理面에서는 一般 國民에게 文化財의 眞價를 周知시켜서 保護에 協力을 얻도록 하고 稀貴種에 대한 增殖 方法을 보급시키는 것도 한가지의 保存策이 될수 있을 것이다.

2. 다시마고사리

Ophioderma pendulum Pr.

全羅南道 海南郡 大屯山 所在.

줄고사리과에 속하는 常綠羊齒인데, 樹上에 着生하여 下垂하고, 잎은 짧은 根莖에서 다복이 나며, 濃綠色이며, 線形이어서, 다시마와 흡사하고, 다소간 肉質이다. 그 길이는 30~80cm, 寬이가 1.5~3cm 정도로서 가장자리가 全緣이며, 단순하거나, 또는 윗쪽에서 1~2번 叉狀으로 가지가 갈리고, 끝이 뭉뚝하거나, 또는 둥글고, 납작하며, 가장자리는 다소간 白色을 띤다. 잎 맥은 가늘고, 下半部에서는 서로 平行하며, 작은맥은 結合하여 그물코를 만든다.

孢子囊穗柄은 잎의 중간부근에 1개가 나고, 다소 굵으며, 윗쪽으로 굽고, 단순하거나 또는 1번 가지가 갈리며 그 길이가 1~4cm 정도다. 孢子囊穗는 線形인데 곧으며, 兩面이 다소 平坦하고, 깊은 홈이 1줄씩 있다. 길이가 5~10cm, 寬이는 5~6mm 정도다.

다시마고사리는 全羅南道誌(1940年)에 未記錄種으로 처음 발표된 것이다. 本人은 大屯山産의 標本을 본바가 없고, 今年까지에 수차에 걸쳐서 그 一帶의 植物相을 調査한 바가 있으나, 確認할 수가 없었다.

6.25事變 以後, 山林의 황폐가 심하였고 더우기 포고 栽培를 위한 山林의 伐採로 인하여 林相이 파괴된 곳이므로 絶滅된 것으로 간주된다.

日本 九州의 南쪽에 있는 屋久島와 琉球, 臺灣, 필리핀, 마레이지아, 印度, 폴리네시아에 걸쳐서 分布하는 熱帶性 羊齒인데, 이것이 大屯山에 生育한다는 것은 植物分布上에 그 類例가 많지 않은 事例임에도 不拘하고 貴重한 學術研究 資料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커다란 損失이며 우리가 文化民族이라고 외쳐본들 世界 植物學者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3. 물 솔

Isoetes jaonica A. Br.

京畿道 平澤郡 平澤邑 平澤平野 所在.

물솔과에 속하는 夏綠性의 水生羊齒로서 는 사이의 도랑 水中에 잠겨서 사는 부드러운 水草다. 塊莖에 다수의 잎이 다복이 나고, 물속에서 곧게 서며 길이가 20~30cm 인데 짧은 것은 10cm 내외다. 잎은 네모가 진 圓柱形이며, 점차적으로 가늘어져서 끝이 뾰족하다. 잎의 밑쪽은 회고 알모양으로 넓어지며 小舌은 긴 三角形이다.

孢子囊은 小舌 밑에 있는 깊이 오목한 속에 1개가 있는데, 길이가 7~9mm 정도며, 蓋膜(Ve-lum)은 없다. 大孢子는 둥글고 회며, 표면에 규칙적인 구멍이 뚫려서 벌집모양을 한다.

大孢子葉과 小孢子葉은 같은 그루에 있는데, 大孢子葉은 길쪽에, 小孢子葉은 안쪽에 배열한다.

이것은 1940年에 本人이 發見하여 韓國産 羊齒植物에 1科를 追加한 것이며, 日本의 本州, 四國, 九州 및 中國(雲南)에 걸쳐서 分布하는 것이다.

今年까지에 數次 現地踏査를 한 바가 있으나, 再確認을 할 수 없었다. 當時에 採集한 것은 液浸標本을 만들어서 現 京畿高等學校 標本室에 두었는데 6.25事變 當時에 없어졌다고 한다.

이곳은 近者에 耕地 整理가 되어서 옛모습이 남아 있는 곳이, 없고, 水路도 새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耕地 整理를 할 때에 絶滅한 것이라고 본다.

4. 물고사리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全羅南道 求禮郡 求禮面, 順天郡 順天市, 光陽郡 光陽邑 附近의 논에 所在.

물고사리과에 속하는 水生羊齒로서 벗논, 또는 논 사이의 도랑에 나는 一年生草本이다.

根莖은 짧고, 鱗片이 다소 있다. 잎은 다복이 나고, 부드러우며, 털은 없다. 羽狀으로 갈리고, 羽片의 갈림점에는 간간이 눈이 있고, 잎맥은 그물코모양으로 결합한다.

胞子葉과 營養葉이 따로 있는데, 胞子葉은 길이가 50cm 정도며, 營養葉보다 크고, 잘게 羽狀으로 갈리며, 裂片이 가늘고 길다.

胞子囊은 잎맥 위에 1個씩 붙어서 전면을 덮고, 뒤집어진 잎 가장자리에 깊이 싸인다. 그 속에 16 또는 32個의 胞子が 들어 있다.

1937년에 本人에 依하여 韓國産羊齒植物에 1科를 追加한 것이며, 日本의 本州, 四國, 九州와 琉球, 臺灣, 中國에서 印度支那, 마레이시아, 포리네시아에 걸쳐 널리 分布한다.

이 地域은 分布上的 北限이 되는 곳인데, 今年까지에 數次 現地 踏査한 바 있으나, 確認하지 못하였다. 이 附近은 耕地 整理가 되었으며, 近者에 除草劑를 使用하고 있어서 絶滅한 것으로 간주된다.

5. 검정방동사니

Fuirena ciliaris (Linne) Roxb.

全羅南道 求禮郡 光義面 芝川里 西施川 砂地 草原에 있다.

사초과에 속하는 草本이며, 전체에 부드러운 털이 開出한다.

根莖은 없고, 대는 높이가 10~40cm, 2~3個의 마디가 있다. 잎은 짧은 線形, 납작하고, 부드러우며, 끝이 뾰족하고, 길이가 5~15cm, 너비는 3~7mm, 葉舌이 쇠녹색인데, 길이가 1~2 mm 정도다.

小穗의 集團은 1~2個로서 小穗 3~10個가 뭉뭉이 모였고, 그 밑의 苞葉은 잎모양을 한다. 小穗는 長橢圓形인데 길이가 4~7mm, 너비는 3mm 정도이며, 겹은 灰綠色이다. 鱗片은 橢圓形이며, 긴털이 다문다문 있다. 길이가 1.5mm, 엷은 膜質이며, 中肋은 길이가 약 1mm 정도의 反曲하는 까락이 있다.

瘦果는 銳三稜形, 倒卵圓形이며, 淡褐色, 凸頭, 果實의 鱗片이 6개 있는데 안쪽 3개는 果實의 길이와 같고, 겉쪽에 있는 3개는 짧으며, 바늘모양이다.

이것은 本人이 1937년에 처음 發見하여 大井次三郎 博士의 同定으로 韓國 사초과에 1屬을 追加한 것이며, 日本 本洲의 中部地方과 四國, 九州와 琉球, 臺灣, 中國, 印度, 마레이시아에 分布하며, 韓國은 이 植物의 分布上的 北限이 되는 동시에, 격리分布를 하고 있는 점이 興味로운 種이다.

1973년에 本人은 同 地域을 現地 踏査하였으나, 確認하지 못하였다. 西施川의 一帶는 이미 堤防構築工事が 끝났으며, 砂地 草原도 없어졌다. 이 工事時에 絶滅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정방동사니는 세대가리 (*Lipocarpha microcephala* (R.Br.) Kunth)와 흡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이 된다.

A. 小穗가 검정 灰綠色이다. 花被片이 6個 이고, 植物體에 털이 있다.검정방동사니

A. 小穗가 淡綠色이다. 花被片이 2個 있는데 背腹 兩側에서 果實을 둘러싸고, 植物體에 보통 털이 없다.세대가리

6. 지네난초

Sarcanthus scolopendrifolium Makino

난초과에 속하는 樹上 또는 岩面에 着生하는 小形의 多年生 草本이다.

줄기는 가늘고 단단하며, 잎은 左右 2줄로 붙고, 그 집이 줄기를 덮는다. 잎은 互生하고 開出하며, 劍狀披針形, 革質인데, 길이가 6~10mm 정도, 끝이 뭉뚝하고, 윗면에 흠이 있다.

꽃은 잎집을 뚫고, 1개씩 피며, 淡紅色이다. 꽃받침조각은 長橢圓形. 꽃잎은 꽃받침조각과 같은 모양이나, 그 보다 다소간 짧고, 꽃받침과 같이 開出한다. 입술꽃잎에 胞狀의 距가 있고, 3갈래가 지며, 距조각은 匙모양을 하며, 中間조각은 삼각상의 알모양인데 白色이다.

과실은 棍棒狀인 倒卵形인데 길이가 6~7mm 정도다.

이 난초는 森爲三博士의 朝鮮植物名彙(1922年)에 依하면, 全羅南道 木浦와 濟州道가 그 產地로 收錄되어 있다.

洪元植 博士가 1955년에 濟州道 南濟州郡 大靜面 山房山 岩壁에서 採集한 바가 있다. 그 뒤 數次에 걸쳐서 實地 踏査를 하였으나, 確認을 할 수 없었다. 이 附近은 山林의 황폐가甚한 곳이므로 絶種된 것이 아닌가 한다.

木浦 儒達山도 調査하였고, 珍島, 莞島, 巨濟島 等地도 調査하였으나 찾아낼 수 없는 稀貴種이다. 이것은 日本의 本洲 西南部 및 四國, 九州에 稀産하고, 韓日暖帶區系의 標識種이다.

이로써 韓國産 난초과에서 1屬 1種을 削除하여야 한다,

絶滅의 危機에 있는 것

1. 솔 잎 란

Psilotum nudum (Linne) Griseb.

濟州道 南濟州郡 西歸邑 天池淵의 西쪽 岩壁上에 있다.

솔잎란과에 속하는 常綠 多年生의 草本인데, 바위틈에서 자란다.

胞子體는 地上莖과 地下莖으로 分化하고, 地上莖에는 잎이 없고, 작은 鱗片이 있으며, 上半部에서 가지가 두어번 叉狀으로 갈리고, 下半部에는 흠이 있고, 줄기는 綠色, 털이 없고, 가지는 모가 난다. 根莖은 叉狀으로 分岐하고, 褐色인 假根이 많고, 뿌리는 없다. 單胞子囊群은 3個의 胞子囊이 合着하여 된 3室이며, 처음에는 綠色, 뒤에 黃色으로 변한다.

세계의 熱帶 및 亞熱帶에 널리 分布하는 熱帶性羊齒로서 東南亞地方에서는 濟州道 南濟州郡

西歸浦가 그 分布上의 北限地帶가 된다.

西歸邑 天池淵의 西쪽 絕壁 틈, 數個所에 남아 있고, 그 個體群도 많지 않은 稀貴種에 속한다.

本人은 1974년까지 數次에 걸쳐서 濟州道 植物相을 調査하였는데, 솔잎란은 이 地域以外에서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漢拏山植物 研究者 夫宗休氏에 의하면, 過去에는 安德溪谷岩壁에도 있었다고 한다.

그 分布上의 北限地帶인 이곳의 솔잎란은 永久히 保存되어야 하고, 稀貴種이므로, 栽培法을 開發하여 觀賞用으로 普及시킨다면, 이와 같은 自生植物이 絶種할 理由가 없을 것이다,

2. 쯤새깃고사리

Lindsaea japonica (Baker) Diels

濟州道 北濟州郡 金寧邑 蛇窟入口 岩壁에 있다.

고사리科에 속하는 小形의 常綠 羊齒다. 根莖은 기고, 그 지름이 1~1.5mm이며, 鱗片이 다문다문 붙는다.

잎자루의 길이가 1~8cm, 층층한 褐色이며, 거의 鱗片이 없고, 윗면에 홈이 있는데, 홈 양쪽에 1個의 가는 줄이 있고, 基部에 소수의 鱗片이 있다.

잎은 길이가 3~10cm, 넓이가 1.5~2cm인데, 털이 없고, 1번 羽狀으로 겹나며, 披針形, 銳頭의 윗쪽이 가늘고, 中軸은 연한 綠色인데, 윗면 양쪽에 날카롭게 1個씩 모가 지며, 뒷면은 둥글다.

羽片 7~12쌍이 서로 접근하여 붙고, 아랫쪽에 있는 것은 開出하나, 윗쪽에 있는 것은 비스듬이 나며, 길이가 6~12mm, 넓이가 3~6mm 정도다.

胞子囊은 羽片의 앞 가장자리에 보통 연속하여 붙고, 곧으며, 苞膜의 가장자리가 거의 全邊인데, 羽片의 가장자리에까지 이른다.

胞子囊이 붙지 않는 앞에서는 羽片 앞 가장자리에 波狀齒가 있고, 뒷쪽은 全邊인데, 그 下半部는 곧고, 上半部는 굽는다.

이것은 金寧蛇窟 入口 岩壁에 붙어서 살고 있다. 數年前에는 새깃고사리 (*Lindsaea cultrata* (Willd.) Swart)와 같이 많이 있었으나, 1974년 4월과 8월에 調査한 결과, 거의 없어졌다.

이곳은 觀光客들이 年中, 많이 모여 들며, 土砂가 季節風에 휘날리는 곳이므로, 그 生育環境에 變化를 가져온 까닭에 稀少해진 것으로 본다.

이 種은 日本의 本洲 紀伊半島, 琉球, 臺灣에 分布하며, 濟州道는 그 分布上의 北限이 되는 것이다.

Lindsaea 屬은 韓國에서는 새깃고사리와 쯤새깃고사리가 濟州道에서 알려졌다. 이 두가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이 된다.

A. 잎자루의 길이가 3~15cm, 그 아랫쪽은 보통 赤褐色이다. 잎몸의 길이가 7~25cm, 胞子

囊群은 잎가장자리가 오목히 들어간 곳에서 짧게 中斷된다. ……새깃고사리

A. 잎자루의 길이가 1~8cm, 때로는 윗쪽을 제외하고는 층층한 紫褐色이며, 잎몸의 길이는 3~10cm, 胞子囊群이 보통 서로 붙어서 곧으며, 中絶되지 않으나, 간혹 牙齒의 들어각 곳으로 中絶하는 경우가 있다. ……쯤새깃고사리

3. 암풀고사리

Gleichenia laevisima Christ.

濟州道 南濟州郡 西歸邑 吐坪里 附近의 山麓地帶에 있다.

풀고사리科에 속하는 常綠性의 多年生 草本이다. 根莖이 길게 땅속을 기고 단단하다. 鱗片은 층층한 褐色, 또는 누른 褐色이며, 膜質인데 全邊이며, 털이 없다.

잎자루에는 낮고 넓은 홈이 있고, 평탄하다. 小羽片은 斜開하며, 裂片은 廣線形인데 斜開하고, 끝이 뾰족하다. 잎의 표면은 綠色이며, 뒷면이 다소 粉白을 띤다. 간혹 棍棒狀의 腺毛가 있다.

胞子囊群은 가장자리보다는 中肋 가까운 곳에 붙는다.

이것은 일찌기 本人이 南濟州郡 法護里 뒷산의 돌담 附近에서 발견하여 追加한 種이다. 그 당시에는 풀고사리와 같이 混生하고 있었고, 個體群도 많았으나, 今年 4월의 實地 調査에서는 確認할 수가 없었다.

南濟州郡 쪽의 山麓地帶는 거의 柑橘園으로 開墾되어서 풀고사리, 암풀고사리가 매우 稀少해졌고, 거의 그 群落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 뿐 아니라, 밭풀고사리의 群落도 濟州道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밭풀고사리, 풀고사리는 黑山島, 莞島, 巨濟島를 연결한 線이 分布上의 北限이 되는데, 黑山島에는 풀고사리의 群落이 남아 있고, 甫吉島에는 밭풀고사리의 群落이 남아 있으나 그 面積은 100坪 내의였다.

山麓을 農耕地로 개간하는 現時點에서 볼 때 熱帶性羊齒인 동시에 陽地 乾燥地帶에 生育한다는 점을 고려한 保護對策이 없이는, 그 群落이 오래지 않아서 없어질 것으로 豫測된다.

암풀고사리, 풀고사리, 밭풀고사리의 구별점과 그 分布區域은 다음과 같다.

A. 根莖과 눈에는 關節이 있는 털이 있다. 羽片이 羽狀으로 깊이 찌개진다. ……밭풀고사리 *Dicranopteris dichotoma* (Thunb.) Bernh.

濟州道, 甫吉島에 있고, 日本의 本洲 西南部, 四國, 九州 및 琉球, 臺灣, 中國에서 濠洲를 包含한 世界의 熱帶와 亞熱帶에 널리 分布한다.

A. 根莖과 눈에는 납작한 鱗片이 있다. 羽片은 2回 羽狀으로 깊이 찌개진다.
B. 鱗片의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小羽片과 裂片은 거의 水平으로 開出하고 잎의 뒷면이 희고, 털이 없다. 裂片의 끝이 둥글다……풀고사리 *Gleichenia japonica* Spr.

B. 鱗片은 全邊이며, 그 길이 엷다. 小羽片과 裂片은 斜開하고, 뒷면 이 다소 희며, 다문

다문 腺毛가 있다. 裂片은 선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다. 잎자루에는 2줄 사이에 좁은 平坦部가 있다. ……암풀고사리 *Gleichenia laevissima* Christ.

濟州道 南濟州郡 西歸邑 吐坪里 附近의 山麓과 日本의 九州에 稀産하고, 필리핀, 中國에 分布한다.

4. 나도풍란

Aerides japonica Reichb. f.

全羅南道 新安郡 黑山面 紅島의 廣葉常綠樹林 內의 樹上에 着生하는 稀貴種에 속하는 난초科 植物이다.

森爲三博士의 朝鮮植物名彙(1922年)에는 濟州島 및 梅加島가 그 産地로 밝혀졌고, 中井猛之進의 東亞植物(1940年)에는 梅加島에 나도풍란이 많은 것은 韓國의 자랑이라고 記載되었으며, 鄭台鉉博士의 韓國植物圖鑑(1956年)에는 濟州島와 梅加島가 그 産地로 되어 있다.

濟州道는 1974年 8月까지에 數次 비자林을 비롯한 여러곳의 植物相을 調査한 바 있으나, 나도풍란은 없었다.

濟州島 植物 研究家 夫宗休氏에 依하면, 過去에는 비자林의 나무가지에 붙어서 살고 있었는데 觀賞用으로 나무가지를 마구 잘라냈으므로 絶種된 것이라고 하며, 그 밖에 着生生活을 하는 난초類까지도 今年의 調査로써 稀少해 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紅島는 1948年에 調査한 바가 있는데, 이때에도 自然生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減少되어 있었다.

紅島에서는 나도풍란을 풍란, 풍란은 개풍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Aerides* 라는 屬名은 氣根을 낸다는 것에 由來한다.

줄기가 짧고, 비스듬이 자라며, 잎은 한그루에 4~5枚씩이 두줄로 붙으며, 두껍고, 좁은 長橢圓形인데, 끝이 뾰족하거나, 또는 오목하고, 길이가 10~15cm, 넓이는 1.5~2.5cm, 表面의 主脉이 오목하게 드러난다.

꽃차례의 길이는 5~20cm, 비스듬이 내려뜨리며, 6~8月頃에 淡綠白色의 꽃 4~10個가 피고, 香氣가 있는 난초다. 日本에서는 溫室 花草로써 오래전부터 널리 栽培하는 觀賞用植物이다.

最近, 韓國에서도 그 栽培熱이 높아져서 高價로 賣買되는 까닭에, 그 原産地에서 個體群이 減少하여 가며, 이래로 가면, 濟州道의 경우와 같이, 絶種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特別 保存策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人工的으로 栽培 増殖하여서 需要家에 普及시킴으로써 野生種을 保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난초는 韓日暖帶區의 共通種이며, 日本의 伊豆諸島와 本州의 京都 以西, 四國, 九州 및 琉球에 分布하는 栽培 난초의 原種에 속한다

5. 콩짜재란

Bulbophyllum drymoglossum Maxim.

濟州道 北濟州郡, 金寧面 비자林의 나무가지에 着生하는 난초類다.

1970年까지만 하여도 相當한 수가 있었으나 今年 4月과 8月의 두차례의 實地 踏査에서는 한 그루도 보지 못하였고, 흑난초(보리난초 *Bulbophyllum inconspicuum* Maxim.)는 아직까지는 個體群이 많았고, 숲 밑에는 새우난초(*Calanthe discolor* Lindl.)의 群落이 있었다.

日本의 本州 中南部와 四國, 九州의 暖帶에 分布한다.

콩짜재란과 흑난초의 구별점은 다음과 같다.

A. 偽莖이 없다. 잎은 橢圓形 또는 卵圓形이며, 길이가 7~13mm, 잎맥이 不分明하고, 꽃잎이 중간 꽃받침 보다 매우 짧으며, 털이 있다. ……콩짜재란

A. 偽莖이 있다. 잎은 보통 倒披針形 또는 좁은 長橢圓形인데, 길이가 1~3.5cm, 꽃잎은 중간 꽃받침과 거의 길이가 같으며,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흑난초(보리난초)

6. 비 자 란

Oberonia japonica (Maxim.) Makino

이것은 夫宗休氏가 濟州道 北濟州郡 金寧面 비자林의 樹上에 着生하는 것을 發見하여 韓國 난초科에 未記錄屬을 追加한 것이다.

本人은 1974年 4月과 8月의 두차례 비자林의 植物相을 調査한 바 있는데, 흑난초, 콩짜재고사리와 같이 나무가지에 붙어서 사는 것을 數個體 確認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콩짜재란은 찾지 못하였고, 풍란, 나도풍란도 絶滅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小形의 常綠性 草本이며, 잎이 葉基部 살모양으로 뾰뻑하게 어긋나고, 下垂한다. 다소 肉質인데, 길이가 1~3cm, 넓이가 2~5mm, 끝이 뾰족하다.

4~5月頃에 꽃차례가 꼭지에 나는데, 그 길이가 2~8cm, 수많은 작은 黃色 또는 帶綠色의 꽃이 開出한다. 苞는 三角形이며, 膜質이다. 꽃받침조각은 平開하고, 廣卵形이며, 끝이 뾰족하고 길이가 약 0.5cm 정도다. 꽃잎은 卵形, 唇瓣은 倒卵形인데, 끝이 5갈래로 갈라지며, 중간에 있는 裂片이 짧다.

果實은 倒卵形, 그 길이가 約 2.5mm, 짧은 자루가 있다.

日本의 本州 關東地方의 西南쪽, 四國, 九州의 暖帶에 分布하는 韓日暖帶區의 共通種인 동시에 稀少하다는 점, 韓國産 난초科의 1屬 1種을 代表한다는 점에서 永久 保存되어야 한다.

이 비자林은 國內에서는 唯一하게 樹上에 着生하는 植物들이 살고 있는 곳이므로, 이미 天然 記念物로써 指定은 되어 있으나, 特別한 保護策이 없이는 稀貴한 着生植物을 保存하기 가 어려운 것으로 본다.

7. 백 운 란

Vexillabium nakaianum F. Maekawa

1937年 8월에 中井猛之進博士의 全羅南道 光陽郡 白雲山 植物相 調査時에 鄭台鉉博士와 함께 本人도 同行하였다.

當時 本人이 上峰 南쪽에 있는 바구리 峰의 西쪽 샘물이 솟아 흐르는 溪流側에 있는 바위 위의 이끼 사이에서 처음으로 發見하여, 前川文夫博士가 新種으로 考證하여서 發表한 것이다 그 뒤에 日本 九州에 稀産한다는 것이 밝혀 正으로 特産種에서 格下되었다.

今年 8월에 韓國自然保存協會의 內藏山 國立公園 學術調査 때에 李昌福博士는 內藏山에서 백운란을 採集하여 그 第3産地를 記錄한 바가 있다.

백운란은 落葉闊葉樹林 밑에 있는 바위에 蘇苔類가 끼인 곳에서 사는 난초로서, 根莖이 길게 기며, 줄기의 높이가 5~12cm, 비스듬이 자라고, 밑쪽에 2~4개의 잎이 있고, 윗쪽에는 털이 있다.

잎의 길이가 3~7mm, 넓이는 2.5~7mm 내외, 卵圓形이며, 끝이 뾰족하다. 잎자루의 길이는 3~6mm인데, 밑쪽에 집모양이며, 줄기를 둘러싼다. 비늘잎은 2개 있다.

꽃은 白色, 1~4송이가 붙는다. 꽃받침조각의 밑 부분이 서로 붙어서 鍾모양의 花被가 되며, 곁쪽에 털이 있다. 中央裂片의 길이는 3~3.5mm, 그 끝이 뾰족하고, 그側裂片은 길이가 4.8mm 정도다.

꽃잎은 倒卵狀長橢圓形이며, 唇瓣의 길이가 4.5mm 정도인데 基部가 뒷쪽을 향하여 距狀으로 커져서 나오고, 그 끝이 알개 2갈래가 진다.

今年 8月 22日부터 25日까지의 白雲山 植物相 調査時에 백운란의 有無를 確認하였으나, 본래 採集地에는 없어졌고, 그 밖에서도 다시 찾지 못하였다.

植物相이 파괴되어서 1937年 당시의 林相이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6.25事變 當時의 戰火로 이곳에 있던 백운란이 絶種된 것으로 豫測된다. 따라서 內藏山 백운란은 特別 保護策을 세워서 永久 保存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特産種인 나도승마(*Kiregeshoma coreana* Nakai), 백운들배(*Pyrus hakusanensis* Nakai)는 남아 있고, 지보(*Hosta nakaiana* F. Maekawa)의 原標本의 産地도 이곳인데, 많이 남아 있었다. 또 여름매미꽃(*Coreanomecon hypomeconoides* Nakai)은 智異山에서 本人이 發見한 新屬으로서 이곳에도 있다는 것을 밝힐수 있었다.

8. 한 란

Cymbidium kanran Makino

濟州道 南濟州郡 漢拏山 南쪽 廣葉常綠樹林 밑에 있다.

난초科에 속하고, 꽃이 12月에서 1月 사이에 피는 稀貴種이다.

잎이 다복이 나고, 線形이며, 常綠인데 彎曲하고, 길이가 20~70cm, 넓이는 6~17mm 정도,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다소 결긋거리며, 밑쪽에 다소 좁아진다.

꽃줄기는 잎 곁에서 나오고, 높이가 25~60cm, 곧게 서고, 鞘葉이 다문다문 있다.

꽃차례에는 5~12個의 꽃이 영성하게 붙고, 苞葉은 草質이며, 線形, 끝이 뾰족하고, 길이가 8~30mm 정도, 꽃에 향기가 있다 꽃은 淡黃綠色에 紅紫色을 띤다.

꽃받침조각은 開出하며, 廣線形, 길이가 3~4.5cm, 꽃잎은 다소 짧아서 길이가 2~3cm 정도다. 唇瓣은 짧고, 3갈래가 지며, 反曲하고, 白色인데 보라색 무늬가 있다.

日本の 本州 紀伊半島, 四國, 九州, 琉球等, 暖帶 南部 分子로서 韓日暖帶區의 標識種이다.

濟州道 漢拏山 南쪽 山麓地帶의 廣葉常綠樹林 밑에 있는 것으로서 過去에는 여기저기 많았으나, 많이 캐낸 탓으로 現在에는 찾아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미 天然記念物로 指定하여 保護하고 있으나,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稀少價値와 꽃이 겨울철에 피고, 香氣가 있다는 점 에서 高價로 賣買되고 있다.

現在 꽃집에는 數十盆씩 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現 自生地에는 近年에 이르러 그 數가 激減되었다. 이것 역시 새로운 保護策이 없이는 自生種이 絶滅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란과 춘란(*Cymbidium virescens* Lindl.)의 區別點은 다음과 같다.

A. 꽃줄기 끝에 꽃이 한송이 (간혹 2송이)가 붙는다. ……춘란

A. 꽃줄기에 數個 또는 10餘個의 꽃이 붙는다. ……한란

9. 풍 란

Neofinetia falcata Hu

黑山島에서는 이것을 개풍란, 나도풍란을 참풍란이라고 부르고, 구별하고 있다.

濟州島를 비롯하여 南海 群島의 岩壁 또는 老木의 樹上에 着生生活을 하는 常綠性의 多年生 草本이며, 난초科에 속한다. 꽃은 7月頃에 白色으로 피고, 香氣가 있으며, 가늘고 긴 距가 매달려서 매우 優雅한 난초다.

日本の 本州 暖帶, 四國, 九州, 琉球에도 分布한다. 日本에서는 일찌기 여러 園藝種을 育種하여 널리 栽培하고 있다.

最近, 우리나라에서도 난초의 栽培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해마다 原產地에서 自然生을 多量으로 採取하여 서울로 搬入 販賣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調査에 의하면 濟州島, 小黑山島, 黑山島, 莞島, 南海島, 巨濟島 等地의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險峻한 岩壁과 無人島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같은 現實에 비추어서 保護措置가 없는 한 原產地에서는, 未久에 絶滅할 것으로 본다. 그 뿐 아니라, 이의 人工的인 增殖도 도모하여 栽培家들의 欲求에 充足시켜야 하겠다.

석곡 (*Dendrodium moniliforma* (L.) Sw.)은 대체적으로 풍란과 같은 지역에 있는 暖帶性의 난초로서 日本의 暖帶와 中國에 分布하며, 日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溫室用 觀賞蘭으로서

널리 栽培하고 있다.

풍란과 같이, 해마다 多量으로 서울에 搬入되는 事實로 미루어 볼 때에 이것에 대하여서도 保護措置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0. 암 매

Diapensia lapponica Linne subsp. *obovata* (Fr. Schm.) Hulten

濟州道 漢拏山 山頂의 岩壁, 日本의 本州 中部 以北의 高山帶, 北海道, 千島, 樺太, 堪察카, 시베리아, 北아메리카, 漢拏山에 걸쳐서 分布하는 北半球의 寒帶性 分子다.

分布上으로 보아서 그 分布環을 벗어난 漢拏山에 隔離分布하고 있는 理由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興味 있는 分子로써 取扱되는 것이다.

암매科에 속하며, 小形의 常綠性 低木인데, 가지는 짧고, 기며, 다복이 나고, 잎이 뽕뽕이 붙으며, 群生하는 種類다.

잎이 두꺼우며, 卵狀의 숫갈 모양인데, 길이가 6~15mm, 너비는 3~5mm, 光澤이 있고, 표면의 中肋이 오목히 드러가며, 마르면 주름이 진다.

꽃은 白色이며, 6~7월에 높이 1~2cm 내외의 꽃자루 끝에 1송이씩 위를 向하여 핀다. 꽃자루에는 2~3枚의 苞葉이 있다. 꽃받침은 5갈래가 지고, 裂片은 長橢圓形인데 오래도록 남는다. 꽃부리는 鍾 모양인데 5갈래가 지며, 수술은 5개, 朔果는 卵狀球形인데 꽃받침이 남아 있고, 익으면 3조각으로 터진다.

1974年 4月과 8月의 두차례에 걸쳐 調査한 바에 의하면, 이 群落은 登山路 바로 옆에 좁은 群落이 두곳 있고, 東南쪽에 두곳 있었다.

4월에 아무런 異狀이 없었던 한 群落에서는 8월까지 이미 그 절반을 캐내갔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貴重한 學術資料라는 것을 理解하지 못한 似而非 學者들의 所行이라고 보아서 앞으로 保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 암매는 高山植物中에서도 平地에서 栽培하기가 어려운 것에 속하므로 그 栽培 技術이 開發되지 않았다.

11. 끈끈이귀이개

Drosela peltata Smith var. *nipponica* (Masamune) Ohwi

끈끈이주걱科에 속하는 食虫植物이다.

森爲三 博士의 朝鮮植物名彙 (1922年)에는 그 產地가 海南島라고 記載되었으나, 南海島의 誤記인 듯하며, 鄭台鉉 博士의 韓國植物圖鑑 下卷(1956年)에는 海南 右水營과 珍島가 產地로 되어 있다.

本人은 上記한 產地를 數次에 걸쳐서 踏查하였으나, 確認할 수가 없었으므로 絶滅된 것으로 본다. 그 理由의 한가지는 近者에 草原 濕地를 거의 農耕地로 만들고 있는 까닭에 없어진 것으로

로 본다.

1970年 8월에 莞島郡 薦花面 甫吉島에 있는 尹孤山 先生의 遺跡을 調査할 때에 甫吉國民學校 건너편 荷原濕地에서 끈끈이귀이개의 群落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곳에는 끈끈이 주걱 (*Drosera rotundifolia* Linne), 땅귀이개 (*Utricularia bifida* Linne) 자주땅귀이개 (*Utricularia yakusimensis* Masamune)의 群落도 있었으며, 高燥地에는 풀고사리 (*Dicranopteris dichotoma* (Thunb.) Bernh.)의 群落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一帶를 保存地域으로 策定할 必要가 있다고 보아서 郡 當局에 保護措置를 依頼하였다.

이 附近은 今年 봄에 곰솔을 造林하기 위하여 水路를 變更시켰고 또, 진구렁에는 돌멩이를 넣어서 通路를 냈고, 소를 먹이고 있어서 1970年 當時와 比較하면 끈끈이주걱의 數가 매우 減少되었고, 8월에 그 地上部가 모두 枯死하고, 球根만 남아 있어서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日本의 本州 關東地方의 以西, 四國, 九州의 暖帶 濕地와 中國에 分布하는 것이다.

12. 능 금

Malus asiatica Nakai

장미科에 속하며, 여름철에 익는 사과의 早生種이라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서울 近郊인 洗劍亭 一帶와 開城 滿月臺 근방에는 능금밭이 많이 있었다. 오늘의 洗劍洞 一帶의 능금 밭은 거의 다 住宅地化되었고, 여기저기 몇그루씩 남아 있을 정도다.

서울에서는 여름철 과일으로써 名物의 한가지이었다.

능금은 언제 누가 育成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中國 사람의 著書인 高麗圖經 第23卷 雜俗 2의 高麗物産에는 “來禽, 青李, 桃, 梨, 棗. 味薄而形小”라고 記錄되어 있으므로 능금은 高麗 때부터, 복숭아, 배, 대추와 같이 과일로 使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뿐 아니라 海東 譯史 物産誌果類編에도 來禽이 收錄되어 있다.

능금을 비롯하여 우리 祖上들이 育成하여 栽培하던 果樹 즉, 배의 청실배, 고실배, 문배, 신배, 들배등도 改良種에 밀려서 原種을 찾기가 힘들게 되었다. 經濟性으로 보아서 在來種이 減少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栽培史를 研究하는 資料가 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品種을 育成하는데도 있어야할 系統이므로, 國家的으로 이를 保存하여야 하는 것이다.

13. 在來種의 柑橘類

柑橘類는 *Citrus*, *Fortunella*, *Poncirus* 의 3屬에 대한 總稱이다.

탱자 (*Poncirus trifolia* Rafin.)는 韓半島의 南部와 南部 群島에 自生하며, 忠淸南道 公州, 大田, 황간과 江原道 三陟을 연결한 線 以南에서 栽培한다.

이 나무는 유자, 밀감의 接木時 臺木으로 쓰이고, 어린 열매는 枳實이라는 漢藥材가 된다. 그뿐 아니라, 울타리감으로도 널리 심고 있다.

유자 (*Citrus junos* Sieb.)는 南部 海岸地方과 南部群島에서 널리 栽培하며 近者에는 그 集團栽

배를 기도하고 있다. 유자는 苦味가 있어서 生食은 하지 않으나, 祭祀 때의 果實로 쓰고, 유자 차를 만들며 香料를 얻고 있다.

東國輿地勝覽에는 巨濟縣 柚子島는 大小 두개의 섬이 있는데 無人島로서, 온 섬이 유자나무로 덮혀 있다고 하는 記錄이 있어 1973年 8월에 巨濟郡 橘島와 統營郡 柚子島를 調査하였으나, 모두 開墾되었고, 柚子는 1株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中國의 柚은 文旦類이며, 日本의 柚子는 中國에서 傳來한 것이라고 하나, 原植物이 다른 반면 韓國과 日本의 柚子는 原植物이 같고, 古記錄에 韓國에는 유자가 自生 또는 自生狀을 이루고 있었다고 記述된 점으로 미루워 보아, 유자는 韓國이 그 原產地로 推定할 수가 있다.

소밀감 또는 홍귤(Citrus tachibana Tanaka)은 韓國과 日本의 自生橘이다.

濟州道 南濟州郡 下孝里 섬섬의 廣葉常綠樹林 사이에 3株가 自生하고 있음을 1974年 8월에 確認하였다. 그늘에 치어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였고, 또 害虫이 많이 붙어서 열매가 한개도 붙지 않았었다. 이대로 두면 오래지 않아서 枯死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선 道公報室 職員에게 周圍의 나무를 베어서 햇 빛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다.

同年 12月 초에는 在來種의 果實을 調査하였는데 濟州市 도련 1洞에서 소밀감(홍귤) 1株를 目擊할 수 있었다. 하밀감, 온주밀감 밭에 1株가 남아 있었는데 小喬木이며, 樹冠이 윗쪽에서 넓게 퍼졌고, 果實은 扁球形인데 黃橙色이며, 果皮가 잘 떨어지고, 얇으며, 작고, 酸味가 많고, 種子가 많이 들어 있었다.

數年에 걸쳐서 調査하여 濟州道內 一圓에 남아 있는 柑橘의 在來種으로 병귤, 산물, 땡유자, 진피귤, 땡귤, 단진귤 소밀감의 7種을 確認하였다.

진피귤은 濟州市 二徒洞에 2株가 있는데 喬木이며, 古木으로서 樹勢가 좋지 못하였으나 果實은 많이 붙었었다. 이 果皮는 陳皮라는 漢藥材가 된다. 탕자보다 작고 金귤보다 크며, 球形의 果實이고 12月 初旬에도 아직 綠色을 띠고 있었다. 맛이 매우 쓰고 果肉도 적어서 食用은 못한다. 近者에는 陳皮로 온주밀감, 산물의 果皮를 代用하고 있으나, 이것은 陳皮의 唯一한 原植物이다.

濟州市 도련 1洞에는 소밀감과 더불어 병귤, 산물, 땡유자, 땡귤의 古木이 남아 있다.

병귤, 땡유자, 산물은 濟州道 一圓에 걸쳐서 오래된 洞里, 歷史가 있는 집 주위에 한두그루씩 남아 있다.

땡귤은 이 동리에 단 1株가 있고, 금년에도 果實이 많이 열렸으며, 球形인데, 작고, 果皮는 잘 벗어지고, 맛은 甘酸이 適合하여 生食할 수가 있으나, 種子가 수량이 들어 있다.

원래, 이 나무에서는 땡유자와 땡귤이 같이 열렸었다고 한다. 4,3事件 당시에 나무가 불탄 뒤에 땡귤과 땡유자가 따로 따로 돌았다는 집 主人 할머니의 설명이다.

이 나무는 불타고 남은 地接部의 둘레가 2m 정도인데 남쪽에 땡귤이, 北쪽에 땡유자의 순이 돌아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 現象은 種子가 多胚인 것을 심어서 두 가지 즉 땡귤과 땡유자의 胚에서 싹튼 것을 그대로 키웠으므로 生長함에 따라서 한그루와 같이 줄기가 서로 붙은 것

으로 추측된다. 學術的으로 價値가 있는 것이므로 保存할 필요가 있다.

병귤은 果實 꼭지가 젓꼭지와 같이 나오며, 球形인데 껍질이 얇고 잘 벗어지며 맛이 在來種中에서는 가장 좋고, 生食할 수 있는 品種이다. 種子가 수량이 들어 있다. 크기는 온주 밀감의 중간 정도다.

산물은 生食할 수가 있는데 果實이 잘고 씨가 많으며, 果皮에 사마귀와 같은 혹이 수량이 달리며, 果皮는 얇고 잘 벗어진다. 나무는 喬木이다.

땡유자는 在來種中에서는 가장 크고, 現在 濟州道에서 栽培하는 어떤 品種보다도 크다. 喬木인데 果實도 많이 달린다. 12月初에도 아직 靑綠色을 띠고 있었다. 果皮가 떨어지지 않으며 두껍고, 生食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감기, 간장炎에 特效藥으로 쓰고, 또 祭祀에 果實로 써왔다고 한다.

물이 많고 단맛이 있는 것을 단땡유자, 물이 많고 신맛이 도는 것을 쌀땡유자, 물이 적은 것을 북땡유자라고 구별한다고 한다. 단땡유자는 南元面에 있고, 북땡유자와 쌀땡유자는 도련 1洞에 남아 있다. 이 나무는 100年이 지난 것이라고 했다.

단진귤은 北濟州郡 涯月面 令月里에 있는 古木인데 地接部의 주위가 2.5m이며, 밑에서 7가지로, 分岐하고 半喬木이며, 樹冠이 옆으로 퍼졌고, 12月 초순에 果實이 익어서 橙黃色을 띠고 있었다. 온주밀감보다는 果實이 약간 작고, 球形인데, 果皮가 잘 벗어지며, 果肉도 많고 甘味가 있으나 酸味가 약간 많다. 씨가 수량이 들었다. 主人은 약 150年이 지난 것이라고 하며, 이 洞里에는 이 나무보다 어린 것은 3~4株 자라고 있다고 한다.

이들 在來種에 대한 이름은 古記錄에 의하면 진피귤, 산물, 땡유자가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고, 最近 文獻에도 收錄되지 않고 있다.

韓國 柑橘類의 栽培史와 渡來經路도 未詳하나, 栽培起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古記錄에 나타나 있다.

옛날에는 이 育種은 주로 實生苗에 依한 것이므로, 多胚인 種子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果實을 育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在來種의 柑橘類를 保存하므로써 栽培史, 渡來經路를 밝히는 資料가 되는 동시에 이를 分類 同定하고, 새로운 品種을 開發하는 데도 資源이 될 것이다. 그러나, 收益性이 적은 까닭에 近者에는 이 品種들이 차차 減少되어 가고 있다.

稀 貴 種

稀貴種은 學術的으로 價値가 있는 植物中에서 個體群이 별로 많지 않은 것과, 環境要素의 變化에 따라서 그 數가 점점 減少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實地調査를 거친 것도 있으나 大部分의 種類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그 實態를 조사 파악하는 資料로써 提供하는 바이다.

韓國產 稀貴種 植物 目錄

Hymenophyllaceae 처녀이끼과

Vandenboschia amabilis (Nakai) K. Iwats 난쟁이이끼
제주도 북제주군 협제 소천굴

Pteridaceae 고사리과

Lindsaea cultrata Swartz 새깃고사리
제주도 북제주군 금녕 사굴

Lindsaea japonica Diels 좀새깃아재비
제주도 북제주군 금녕 사굴

Pteris inaequalis Baker var. aeqvata Tagawa 긴반쪽고사리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천지면

Pteris inaequalis Baker var. simplicior Tagawa 섬반쪽고사리
제주도 남제주군 천지연 및 섭섬

Pteris cretica Linne var. albo-lineata Hook. 알록큰봉의꼬리
제주도 북제주군 협제 소천굴

Blechnaceae 새깃아재비과

Woodwardia japonica Smith 새깃아재비
제주도 남제주군 한라산 남쪽 산기슭의 상록수림 밑

Loxogramme graminoides Christ. 주걱일엽
제주도 남제주군 저산지대의 상록수림 밑

Loxogramme salicifolia Makino 버들일엽
제주도 남제주군 저산지대의 상록수림 밑

Loxogramme saziran Tagawa 수깥일엽
제주도 남제주군 저산지대의 상록수림

Polypodium fauriei Christ. 나사고사리
제주도 한라산 중북의 바위 또는 나무 위에 붙음

Vittariaceae 일엽아재비과

Vittaria flexuosa Fee 일엽아재비(다시마고사리)
제주도 남제주군 한라산 남쪽 저산지대의 상록수림

Vittaria zosterifolia Wiedl. 섬일엽아재비
제주도 남제주군 한라산 남쪽 저산지대의 상록수림

Taxaceae 주목과

Taxus caespitosa Nakai 가라목(누은주목)
강원도 설악산 산정 부근

Pinaceae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forma aurescens Uyeki 황송(황금소나무)
남부의 산지에 간혹 있고 재배한다.

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forma pendula Mayr. 능수소나무(처진솔)
각지의 산지에 간혹 있고, 재배한다.

Pinus thunbergii Parl. forma multicaulis Uyeki 가지곰솔
충청남도 공주 부근에 있고, 재배한다.

Saururaceae 삼백초과

Saururus loureiri Decais. 삼백초
제주도의 저지 도랑 가에 있다.

Myriaceae 소귀나무과

Myria rubra Sieb. et Zucc. 소귀나무(속나무)
제주도 남제주군 한라산 남쪽 저산지대의 상록수림

Fagaceae 밤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 et Zucc. var. kusakuri Nakai 산밤나무
전라북도 정읍군 내상사 뒷산 숲에 내충성이 강한 것이 있다.

Polygonaceae 여뀌과

Pteropterus cilinervis Nakai 개하수오(나도하수오)
각지에 자생하며, 매우 희소하다.

Nymphaeaceae 수련과

Euryale ferox Salisb. 가시연
남쪽 각지에 연못에 남아 있는데 매우 희소하다.

Nymphaea minma Nakai 각시수련(아기수련)
중부, 남부의 소택이 있다.

Nupharaceae 개구리연과

Nymphoenthus japonica Fern. 개구리연
중부, 남부의 소택에 있다.

Nymphoenthus subintegerrimus Fern. 좀개구리연
중부, 남부의 소택이 있다.

Paeoniaceae 작약과

Paeonia japonica Miyabe et Takeda var. pilosa Nakai 백작약
각지의 산지 수림 밑에 있다.

Helleboraceae 성탄꽃과

Aconitum austro-koraiense Koidzumi 미색바꽃
지이산 수림 밑에 있고, 매우 희소하다.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Plagiorhegma dubia Maxim. 껌이풀(조황련)
인천, 광주, 해남 부근 산지에 있고, 희소하다.

Lauraceae 녹나무과

Cinnamomum loureirii Nees 제피나무
남제주군 남원면에 수주가 있다. 재배한다.

Laurus nobilis Linne
제주도 북제주군 금녕 하도국민학교에서 재식함

Papaveraceae 양귀비과

Coreanomecon hylomecoides Nakai 여름매미꽃(매미꽃)
전라남도 백운산, 지이산에 있는 단계적인 희귀식물이다.

Brassicaceae 배추과

Wasabia koreana Nakai 섬고추냉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의 계류가에 있고 재배한다.

Hamamelidaceae 조록나무과

Colylopsis coreana Uyeki 송광나관화
전라남도 송광사, 화엄사 계곡에 있다.

Rosaceae 찔레과

Pyrus maximowicziana Nakai 청실레
재배.

Pyrus nankainensis Nakai 남해돌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Pyrus rufa Nakai 백실레(백실네)
재배

Pyrus seoulensis Nakai 문배
중부 산지

Pyrus vilis Nakai 분실네
재배

Fabaceae 콩과

Echinosophora koreensis Nakai 개너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뒷산

Anacardiaceae 옷나무과

Rhus verniciflua Stok. 옷나무
남부에서 재배한다.

Rhamnaceae 갈매과

Berchemia kunitakeana Chung 먹년출
전라북도 군산시 저수지 부근,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도.

Berchemia racemosa Sieb. et Zucc. 청사초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도

Elaeocarpaceae 담팔수과

Elaeocarpus sylvestrus Poir. 담팔수
제주도 남제주군 해안 가까운 상록수림

Malvaceae 무궁화과

Paritium hamabo Nakai 갯부용(황근)
제주도 해안 사지

Daphnaceae 서향과

Daphne kiusiana Miquel 백서향
제주도 북제주군 선홍리 상록수림

Edgeworthia papyrillera Sieb. et Zucc. 삼지닥나무
제주도 북제주군 제주시 재배

Araliaceae 오갈피과

Textoria morbifera Nakai 황칠나무
제주도, 완도, 진도의 상록수림

Clethraceae 까치수염나무과

Clethra barhinervis Sieb. et Zucc. 까치수염나무
제주도 한라산 수림

Ericaceae 철쭉과

Rhododendron indicum Sweet. 영산홍
재배

Rhododendron micranthum Turcz. 겨우살이참꽃나무
중부, 북부의 산지

Primulaceae 취란화과

Primula hallaisanensis Nakai 한라취란화(한라개꽃)
한라산 산정 부근의 초지

Primula japonica A. Gray 제주취란화(제주개꽃)
한라산 산정 부근의 초지

Primula modesta Bisset. et Moor. var. *genuina* Takeda 설취란화(눈앵초)
한라산, 덕유산 산정 부근

Primula modesta var. *fauriae* Takeda 아기취란화(아기앵초)
한라산 산정 부근의 초지

Primula sieboldi Miq. forma *spontanea* Takeda 취란화(앵초)
남, 중, 북부의 산지계류의 습지

Ebenaceae 감나무과

Diospyros kaki Thunb. var. *domestica* Makino 감
백수시, 반시, 먹감, 툇감 등 여러 품종이 있다.

Oleaceae 물푸레나무과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미선나무
충청북도 괴산, 진천, 서울 북한산에 있다.

Forsythia viridissima Lindl. 중국개나리
경상북도 의성에서 재배한다.

Osmanthus zentaroanus Makino 살마목세(박달목서)
전라남도 거문도

Gentianaceae 용담과

Nymphoides coreana Hara 흰어리연꽃
중부, 남부의 소택지

Nymphoides indica Kuntz 어리연꽃
북부, 중부, 남부의 소택지

Nymphoides peltata Kuntz. 노랑어리연꽃
중부, 남부, 제주도의 소택지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Marsdenia tomentosa Moor. et Decais. 나도은조롱
거문도, 조도, 흑산도, 제주도의 상록수림

Cuscutaceae 새삼과

Cuscuta chinensis Lam. 갯실새삼
제주도 남제주군 산방산의 상록수림

Labiatae 광대나물과

Ajuga spectabilis Nakai 자란초
경기도 광릉, 전라남도 백양산 수림

Salvia chanroengnica Nakai 단삼(참뻘차즈기)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경상남도 창녕, 가야산, 경상북도 조령

Lentibulariaceae 통발과

Utricularia yakusimensis Masamune 자주망귀이개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면 보길국민학교 부근 습지

Rubiaceae 꼭두선이과

Nauclea rubella Nakai 중대가리나무
제주도 남제주군 효돈천 유역

Compositae 국화과

Leontopodium coreanum Nakai 솜다리
강원도 설악산, 금강산

Chrysanthemum zawadskii Herb. var. *campanulatum* Kitamura 꽃구절초
재배

Araceae 천남성과

Amorphophala kiusiana Makino 개곤약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사 약사암

Amaryllidaceae 수선과

Lycoris aurea (L'Herit) Herb. 개상사화
백양산, 내장산, 제주도 안덕 계곡

Lycoris radiata Herb. 독무릇(꽃무릇)
백양산 대둔산, 고흥 금탑사

Lycoris sanguinea Maxim. 분홍상사화
백양사, 내장사, 남부에서 재배한다.

Lycoris squamigera Maxim. 상사화
재배

Orchidaceae 난초과

Bletilla striata (Thunb.) Reichb. f. 자란(약난초)
해남, 대둔산

Liparis auriculata Blume 옥잠란
제주도, 소흑산도

Calanthe tricarinata Lindley 제주새우난초
제주도 비자림

Calanthe reflexa Maxim. 새우난초
제주도, 울릉도

Calanthe furcata Bateman 금새우난초
제주도 한라산 중부

Cymbidium nipponicum Makino 대홍란
전라남도 해남군 대홍사

Taeniophyllum aphyllum Makino 거미난초
제주도 비자림

主要 參考 文獻

安鶴洙·李春寧 ; 韓國植物名鑑 (1963)
 張 亨 斗 ; 學生植物圖譜 (1952)
 鄭 台 鉉 ; 한국 동식물도감 (식물편 초록부) (1962)
 李 德 鳳 ; 俗離山 植物 目錄 (1953)
 李 德 鳳 ; 濟州島 植物相 (1957)
 李德鳳·朱尙宇 ; 鬱陵島 植物의 再檢討 (1957)
 李 昌 福 ; 植物分類學 (1968)
 李昌福·李文豪 ; 內藏山一帶의 植物資源 (1974)
 李 永 魯 ; 種子植物分類學 (1968)
 李永魯·吳瑤子 ; 內藏山一帶의 單子葉植物 (1974)
 全羅南道 植物 ; 全羅南道 教育會 (1946)
 牧野富太郎·根本莞爾 ; 日本植物總覽 第二版 (1931)
 牧 野 富 太 郎 ; 新日本植物圖鑑 (1962)
 森 爲 三 ; 朝鮮植物名彙 (1922)
 中井 猛 之 進 ; Flora Koreana II (1911)
 中井 猛 之 進 ; 濟州島 並 莞島植物 調查 報告書 (1914)
 中井 猛 之 進 ; 東亞植物區景 岩波講座 生物學 (1931)
 中井 猛 之 進 ; 東亞植物 岩波書店 (1931)
 中井 猛 之 進 ; 光陵試驗林의 一斑 (1932)
 中井 猛 之 進 ;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1952)
 北 川 政 夫 ; Lineamenta Florae Manshuricae (1939)
 北村四郎·村田源·堀勝 ; 原色日本植物圖鑑 I (1957), II (1963) 保育社
 大井 次 三 郎 ; 日本植物誌 (1953)
 大井 次 三 郎 ; 標準原色圖鑑全集 9 (1969), 10 (1970)
 岡 本 省 吾 ; 朝鮮 智異山 植物 目錄 (1961)
 朴 萬 奎 ; 韓國 雙子葉植物誌 (1974)
 朴萬奎·朴弘憲 ; 茂朱九千洞의 植物相 (1972)
 朴萬奎·朴弘憲 ; 海南大屯山의 植物相 (1972)

主要都市 및 特殊地域의 自然石과 水石 採取 狀況의 踏查

李 徽 載

- 一. 踏查期間 : 1975年5月2日부터
1975年8月31일까지
- 二. 踏查者 : 韓國自然保存協會
副會長 李徽載
- 三. 踏查 目的

요즈음 各 日刊紙上에는 全國에서 自然石과

自然景觀을 毀損하고 있으니 現地를 踏查하고 이에 대한 防止對策을 研究하여 달라고 하는 要求가 殺到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人은 이에 부응하여 全國의 自然石과 水石 採取 實況을 踏查 把握하여 關係當局에 建議하므로써 이의 防止策 樹立을 위한 政策의 資料로 提供되어지고 나아가서는 防止法 制定의 促進制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本 踏查를 實施하였다.



「크레인」車를 動員하여 自然石을 採取하고 있다. (華川)

水石의 濫採行爲가 盛行되어 우리나라의 秀麗한 溪谷景觀을 망치고 있다는 記事가 자주 報道되고 있음을 본다.

뿐만아니라 本 協會에는 全國各地로부터 自己 地方에서 自然石과 水石의 採取가 甚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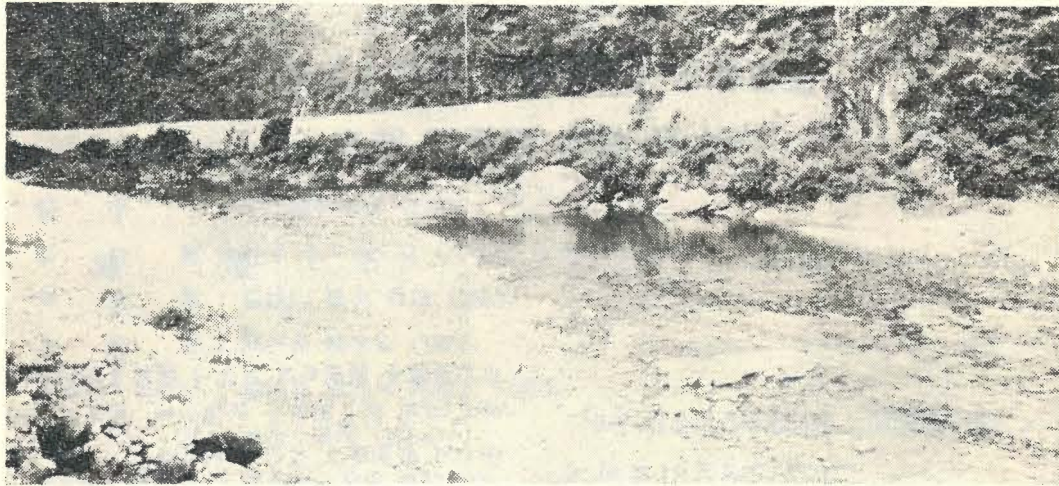
四. 踏查의 內容

1. 서울市內

서울市內에는 대체로 15~20여 개소의 自然石(水石) 판매처가 있다. 이들은 모두 花園이라는 상호 아래 平均 200餘 「트럭」分 以上の 自然石을 山積해 놓고 있는데 그 分布를 보면 彌阿洞에서 倉洞間이 10여개소로 가장 많고 延禧洞一帶에 4~5개소, 망우리에

1개소 등이다.

本人이 이들 業所를 各各 訪問하고 탐문한 바에 의하면 自然石 및 水石의 產地는 華川과 加平이 대부분이고 한탄江 것이라는 것과 雪嶽山 産이라는 것이 1개소씩 있었다.



加平川 제령리, 도대리 앞 내의 水石이 모두 採取되었다. (加平)

또 이 業者들이 말하는 採取 運搬 경위는 대개가 公共機關의 實需要證明을 발급 받아 이의 納品用으로 採取許可를 얻어 採取 運搬한다고 하는데 감독 확인이 不充分한 實情을 기화로 許可量 또는 實需要量보다 몇 10배나 되는 量을 採取 運搬하는 것이 보통이고 採取場所도 指定한 場所 以外에 車輛通行이 便利하고 採取 作業이 용이한 곳이면 어디서나 採取하고 있다는 것이 實地 踏查結果 밝혀 졌다.

2. 華川

北漢江의 上支流이며 寂寞의 極致 舞鶴峰瀑布의 玉水가 흐르는 美景의 下流인 華川郡 史內面 社倉里 溪谷의 自然石과 水石은 이미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다만 곳곳의 木을 무너뜨려 만든 車輛進入路近處에만 실어내고 남은 깨어진 自然石(水石)이 흩어져 있을 뿐이다.

넓은 河床 여기 저기에는 커다란 自然石을 採取해간 자리가 웅덩이처럼 패여 있었고 건너편의, 河川으로 流入되는 溪谷의 入口에서는 「크레인」車까지 동원하여 커다란 바위덩이를 파내고 있는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3. 雪嶽山

外雪嶽 神興寺 溪谷의 下流인 雙川河口附近이 採取場所이다. 이곳에는 東草市長 名義로 骨材 採取 場所라는 標識板이 세워져 있으나 標識板 근처에서는 이미 自然石(水石)은 모두 搬出되었고 요즈음은 자갈 採取를 하고 있으며 自然石(水石) 採取는 차츰 上流部分으로 확대되어 現在에는 雪嶽山 國立公園 保護區域의 境界地域이 그 採取 場所가 되고 있다. 隣近 住民의 말에 의하면 요즈음도 하루에 10여 「트럭」이상씩의 自然石(水石)이 搬出되고 있다고 하는데 實際로 本人이 現地에 있는 동안에도 불과 1時間 동안에 2「트럭」이 搬出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雪嶽山 國立公園管理事務所長의 說明에 의하면 양양군 강현면 강현川의 水石은 質이 더욱 좋은 것으로 알려져 多量이 採取 搬出되고 있는 實情이라고 한다.

4. 雉嶽山

龜龍寺 앞 溪流의 下流, 鶴谷貯水池 附近이

採取場所이다.

이곳도 역시 커다란 水石은 이미 모두 搬出되었고 本人이 現地를 實地 踏查하였을 때는 조그만 水石들을 모아 車에 싣고 있었다.

또 原州에서는 橫城郡 간흥면 갑림리, 原城郡 판부면 후리절(寺), 神林面 神林里에서 주로 採取해 온다고 하는데 후리절 용수골 앞 河川을 約 3km 가량 踏查한 結果 후리절 다리 밑 上下의 水石을 제외하고는 모두 採取 搬出되었다.

5. 江原道 春川, 忠北 淸州

市內에서는 水石이나 自然石이 積置된 것을 볼 수 없었다. 다만 春川의 경우 “왕바위집”이라는 집에 珍奇한 壽石을 많이 蒐集하여 놓은 것이 있었다.

6. 華陽洞

화양동이 道立公園으로 指定되기 전에는 水石이 採取 되었으나 道立公園으로 指定된 후에는 一切 採取가 금지되고 있다고 하나 第5觀光地 앞 河川에는 水石을 採取한 痕跡이 完연하였다.

7. 丹陽

自然石이나 水石의 採取는 없으나 8景中の 하나인 上仙岩, 中仙岩, 下仙岩 등이 자리잡고 있는 벌천(단양골)에서 壽石의 採取가 盛行되어 年間 30여 「트럭」式 搬出된다하며 실제로 邑內 낙원 食堂앞에 200여개의 壽石이 놓여 있고 丹陽光觀協會長老에는 수많은 壽石이 전시되어 있었다.

8. 大田

過去에는 西海岸의 自然石을 採取하여 日本에 輸出하까지 하였으나 現在에는 이와같은 自然石의 採取行爲가 嚴禁되고 있다고 한다.

9. 全州

요즈음은 關係當局의 단속이 甚해서 市內에는 自然石을 쌓아두지 못하므로 市內의 某農場에 積置(15「트럭」정도)하여 놓고 수요자의 要求가 있으면 이를 운반해다 준다고 한다.

10. 谷城

谷城産의 水石은 質이 良好할뿐 아니라 日本人이 直接 現地에 와서 감정을 하고 매수해감으로 採取의 程度가 심하였다.

實際로 各地域別로 그 實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道林寺入口

谷城面 動嶽山 내의 水石採取와 兄弟峰의 들받침암의 파괴는 이곳의 景觀을 망치고 있다.

2) 아들바위

谷城郡 삼기면과 석곡면의 境界내에 자리잡고 있는 由來깊은 아들바위를 日本人의 使嗾로 採取해 가려다 地方人士들의 反對로 좌절되었다고 한다.

3) 寶城江(谷城郡 석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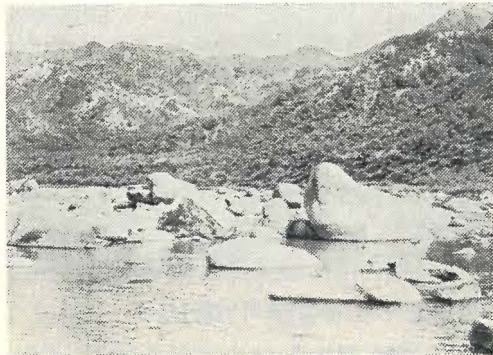
水石은 이미 모두 採取반출 되었고 자갈과 모래만 남아 있다.

4) 三江湖

三江湖는 谷城郡 谷城面 新基里(섬진강 상류 순자강변)와 全北 南原郡 金池面의 道界에 置하고 있는데 크고 아름다운 水石이 많이 있고 淡水魚(황어, 쏘가리, 잉어, 자라, 장어, 은어, 메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인데 每日「트럭」으로 이들 水石을 採取 搬出하여 三江湖의

50m 下流 地點까지 침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75. 6. 17. 現地 踏査당시. 이 침해 상황은 사진 참조)

萬一 이대로 방치한다면 순자강 上流의 淡



아직 원형이 잘 保存되어 있는 三江湖(谷城)



三江湖로부터 50m 下流, 깨뜨려진 水石이 搬出직전이다.



三江湖에서부터 100m 下流, 깨어진 水石이 一部 搬出되었다.

水魚族은 그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를 당하게 될뿐 아니라 이 地域의 아름다운 경관도 볼품없이 되고 말것이다.

11. 光 州

市內에서는 自然石이나 水石이 集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었고 필요할때에는 無等山에 가서 採取해 온다고 한다.

12. 麗 水

부두근처에 硃石, 蠟石, 水石등이 山積되어 있었으나 採取場所나 用途등은 정확히는 알 수 없었고 근처의 人夫들의 말에 의하면 日本으로 수출하기 위한것 이라고 한다.

또 任實과 新림驛間 全州川의 上流이며 유명한 사선대의 下流川인 鐵橋 右側 江邊에 自然石이 많이 쌓여 있었다.

13. 大 邱

市內에는 쌓아둘 수 없으므로 市外에 옮겨 두었다고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採取場所가 店村近處라는 말에 따라 店村에 가보았으나 이곳 역시 多量 積置 해 놓은 것은 볼 수 없었으며 구락리 簡易驛 附近에서 많이 採取된다는 住民의 말이였다.

14. 釜 山

現在는 원호회관 右側 花園뒤에 커다란 水石이 20여「트럭」가량 쌓여 있는것 외에 다른 곳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 水石은 京畿道 加平에서 採取되어 日本으로 수출키위해 운반되어 온것중의 一部라고 했다.

이곳 以外에도 花園 五個處를 방문하였으나 이들은 필요할때에는 그때 그때 梁山 梵魚寺,



三江湖에서 150m 下流, 全部 搬出되었다.

金海等地에서 採取 운반 해올뿐 市內에 積置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本人이 梵魚寺를 踏査한 결과 이곳 계곡內의 水石이나 自然石은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15. 加 平

加平川의 上流인 제령리, 도내리, 等地 山谷內의 水石은 거의 다 採取되어 없었고, 요즘은 훨씬 上流쪽인 赤木里 근방에서 採取 운반한다고 한다.

五. 建議事項：自然石과 水石採取(積)의 制止方案에 對한 建議

現在와 같이 自然石과 水石의 濫採를 徹底히 團束하지 않는다면 景觀破損으로 山間溪谷의 水晶같은 溪流는 衰滅이 많아질 것이고 山の 崩壞를 招來하는 原因이 될것이며 洪水의 犯濫과 沙汰의 一大原因이되어 國土計劃에 큰 支障의 憂慮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建議나이다.

(1) 自然石과 水石採取(積)許可에 關聯되는 일에 대하여

(a) 面이나 郡에서 許可해 주는것을 中止

하고 中央廳關係部處에서 直接 取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思料됨.

(b) 國防上 또는 國策上 必要한 것 以外는 景觀을 毀損하면서까지 採取許可하는 것을 避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c) 名山 名地一帶의 아름다운 風景地帶의 採取는 一切容許치 말아야 하겠음.

(d) 谷城의 三江湖와 아들바위 같은 곳은 採取破壞를 時急히 防止할 것을 要望함.

(e) 그린벨트 境界內에서 骨材採取 禁止解除가 될 경우라도 自然美觀을 害치는 程度의 解除는 해서 안될 것으로 思料됨.

(f) 名地의 水石을 採取하여 輸出하는 것은 以後부터는 根絶시킬 것을 懇望함.

(g) 서울市內에 只今과 같이 無制限 搬入하여 나무시장이라는 看板을 붙이고 裏面에 山데미 같이 쌓아놓는 것은 以後부터는 斷然코 嚴禁할 것을 懇望함.

왜냐하면 서울市內의 山데미 같은 水石과 自然石 가리는 그만큼 地方의 景觀을 破壞하는 것이 되기때문이고 또는 地方의 都市에서는 市內에 採積하는 것을 다 禁止하여 좋은 成果를 얻고 있는 까닭입니다. 단지 釜山과 麗水에는 日本에 輸出하다가 남은 것이 쌓여 있을 뿐입니다.

(2) 水石과 自然石 採取를 禁止하는 것을 骨子로 하는 河川法制定과 林產物 取締法制定을 무엇보다도 第一먼저 務願합니다.

이 法의 制定이 時急히 完結되어야만 水石, 自然石 採取禁止에 適切하고 正常的인 效果가 날것으로 認定되기 때문입니다.

서울市內의 自然石 및 水石實態調查

李 徽 載

踏查期間：1975年5月2日부터
1975年8月31日까지
踏查者：韓國自然保存協會
副會長 李徽載

요즈음 서울의 번두리地域에서는 어디에서나 山積되어 있는 自然石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 自然石은 물론 公園이나 綠地帶의 造景工用으로서, 또는 建築資材로서 有用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事實이었으나 自然保存이나 國土保存이라는 巨視的 次元에서 본다면 이들 自然石의 마구잡이 採取는 分명한 自然破壞요 景觀毀損이다. 뿐만아니라 地域에 따라서는 이들 自然石의 採取가 河岸이나 農地의 流失, 또는 溪谷에서



市內 20餘個處에 이와 같은 自然石이 山積되어 있다. (河川石)

의 沙汰까지도 誘發할 수 있는 可能性이 크다고 생각되어 이들 自然石의 採取現場을 直接踏查하고 그 現地實態를 調查하였다.

自然石의 採取販賣

서울市內에는 大體로 15~20餘個所의 自然石販賣處가 있다. 이들은 모두 花園이라는 商號아래 平均 200餘「트럭」분 以上の 自然石을 山積해 놓고 있는데 그 分布를 보면 彌阿洞一倉洞間이 10餘個所로 가장 많고 延禧洞一帶에 4~5個所, 忘憂里에 1個所 등이다.

本協會의 調査班이 이들 業所를 各各 訪問하고 探問한바에 의하면 自然石의 產地는 華川과 加平이 大部分이고 漢灘江 것이라는 것과 雪嶽山産이라는 것이 1個所씩 있다. 또 이 業者들이 말하는 採取運搬經緯는 大概가 公共

機關의 實需要證明을 받아 이의 納品用으로 採取許可를 얻어 採取運搬한다고 하나 監督確認이 不充分한 實情을 奇貨로 許可量 또는 實需要量 보다 10倍 나되는 量을 採取運搬하는 것이 普通이고 採取場所도 指定한 場所以外的 車輛運行이 便利하고 採取作業이 수월한 곳이면 어디서나 採取하고 있는 것이 實地踏

查 結果 밝혀졌다.

地域別 採取現場의 實態는 다음과 같다.

1) 華川地域(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일대)

華川에서 鐵原으로 通하는 國道邊 河川이 그 主採集地로서 數年前부터 採取가 行해지고 있다고 한다.

本人이 現地를 踏查한 結果 이미 河川의 作業이 容易한 地域에서는 쓸모없는 自然石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現在는 隣近 溪谷入口의 埋沒된 돌까지 파내고 있었다.

採取作業中인 現場은 幅 5m 以內的 溪流 下端으로 바닥이나 양쪽벽면(높이 2~3m)에 박힌 巨大한 돌을 10餘名의 人夫와 大型「크레인차」를 動員하여 採取하고 있었는데 돌을 파낸 자리는 다시 築臺를 쌓아 補修하지 않는限 양 언덕위의 農土의 流失이 不可避하다고 보여진다.

2) 加平地域(가평군 목동~적목리간)

加平~적목리간의 加平川이 採取現場이라고 하나, 이미 河床에는 자갈만이 남아있는 實情이고 군데군데의 搬出하기 위하여 自然石을 몰아 두었던 곳에만 苦干씩 남아 있는 程度이다.

3) 雪嶽山地域(東草市 도문동과 襄陽郡의 境界)

外雪嶽 新橋사 入口의 東草市 道문동과 양양군의 境界가 되는 쌍천一帶가 採取場이다. 이곳에는 零細民 就勞事業場이라는 標識板이 세워져있고 요즈음도 1일에 10餘「트럭」씩의 自然石이 搬出되고 있다고 한다.

實際로 本人이 現地에 있는 동안에도 約 1時



雪嶽山 雙川에서 水石을 실어내고 있다. (雪嶽山)

間 동안에 自然石을 滿載한 車輛이 2차레나 가는 것을 目擊할 수 있었다. 이 地域은 前述한 바와 같이 東草市와 襄陽郡의 境界地域이고 東草市에서는 零細民 就勞事業場으로 指定하여 大的인 自然石 採取가 行해지고 있는 實情이다.

國立公園管理事務所側은 公園地域이 아니라고 하여 放觀하고 있으나 이곳은 國立公園이자 韓國第一의 觀光地인 雪嶽山의 關門이 되는 곳이므로 特히 自然景觀의 毀損이 徹底히 막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現在 대로 放置한다면 머지 않아서 아름다운 溪流風景은 荒廢된 別판이 되고 말것이다.

따라서 東草市의 零細民 就勞事業場 指定은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雪嶽山 管理事務所側도 이 一帶에 대한 管理를 徹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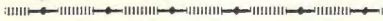
建議事項

本協會가 全國의 主要都市를 對象으로 踏查한 結果에 의하면 現在 서울市內와 같이 大規模로 自然石을 集積하여 놓은 곳은 한곳도 없었으며 麗水의 埠頭가를 除外하고는 小規模

의 集積地도 찾아볼 수 없는 實情이었음.

따라서 現在의 서울시內의 實情은 地方의 他都市에도 크게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建議하오니 善處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今後로는 如何한 경우라도 서울시內에 自然石을 山積해 놓는 일이 없도록 措置해 주시고,
2. 公共機關用으로 採取를 許可할 경우에는 採取場所를 嚴定하고 採取量과 許可量의 相違與否를 徹底히 確認함으로써 現在와 같은 事態가 發生하지 않도록 措置해 주시길 바랍니다.



<表紙說明>

잃어져 가는 天然記念物들

天然記念物이란 그 나라 그 鄉土의 自然界를 代表할 수 있는 固有한 動植物이나 地質과 鑛物 또는 原始林, 自然風景等 天然物을 주로 그 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京畿道 龍門寺의 銀杏나무나 珍島犬, 烏骨鷄와 같이 사람이 植栽한 老巨樹 또는 飼育하고 있는 稀貴動物等이 그 對象이 되기도 한다.

1974年 12月末 現在 우리나라에서 指定 保護되고 있는 天然記念物은 185種類 (植物資源 124, 動物資源 43, 天然保護區域 5, 鑛物, 地質, 其他 13)로서 그 中에서도 特히 老巨樹나 名木으로서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것이 53點에 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全國적으로 많은 數의 老巨樹나 名木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 祖上들의 生活 風習이나 民話, 傳說等과 깊은 關聯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天然記念物은 그 對象이 어떤 것이든지간에 그 나라 그 鄉土의 歷史上 또는 學術上의 研究資料로서 價値가 있을 뿐아니라 愛國心, 愛鄉心을 기르는 터전이 되는 값진 물건이며, 또 이것은 일단 破壞되면 다시는 原狀을 복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國民모두가 그 破壞를 미연에 防止하고 原狀대로 保存하는데 힘을 기우려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昨今の 實態를 보면 이미 指定된 天然記念物이 住民들의 무관심으로 여러가지 災禍를 면치 못하고 結局 消失되거나, 保護를 위한 指定이 保護는 커녕 오히려 그 資源을 破壞 消滅시키는 계기가 되는 事例도 드물지 않았다. 濟州島의 파초일엽(18호)과 한탄(191호)이 그랬고, 俗離山의 망개나무(207호)나 光陵의 장수하늘소(218호)도 그 例라 하겠다. 그래서 어느 學者는 天然記念物의 對象이 되는 資源中의 어떤것들은 오히려 이것의 指定이 두려움기 까지 하다고 할 정도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天然記念物을 비롯한 우리의 貴重한 自然資源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遺産임을 깊이 認識하여 이들을 가꾸고 지킴에 있어 추호도 吝嗇함이 없어야 하겠다.

最近 政府에서도 全國의 老巨樹等을 保護하기 위하여 年2회에 걸쳐 그 實態를 調査하고 保護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措置가 있었다고 들었다. 此際에 國民들의 積極적인 協助아래 이와 같은 當局의 노력이 결실을 견우게 되어 우리 民族이 文化民族임을 誇示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題字는 成均館大學校 教授 閔泰植 博士의 揮毫입니다.

발행인 李 德 鳳

편집인 金 昌 煥

발행처 社団法人 韓國自然保存協會

서울特別市東大門區清涼洞山1
林業試驗場內 ☎ 2894

등록번호 다-576호 등록일자 1975. 8. 26

<非 賣 品>